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석 문 주**

본 연구는 국외의 음악교육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학술지는 Update, JRME, CRME, IJME를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술지들은 첫째, 연령층과 학교급별 따른 연구대상이 다양하고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둘째,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셋째, 연구영역이 다양해지고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주제어 : 음악교육연구, 연구동향, 음악교육

차 례

I. 연구목적과 필요성

II. 음악교육연구의 동향

III. 연구방법

IV. 연구 분석 결과

1. Update에 나타난 연구동향
2. JRME에 나타난 연구동향
3. CRME에 나타난 연구동향
4. IJME에 나타난 연구동향
5. 학술지별 비교에 따른 연구동향

V. 결 론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G000009)

** 경인교육대학교 부교수

I. 연구목적과 필요성

어느 학문분야에든지 그 분야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탄탄한 지식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지식체계는 연구라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질의 연구는 그 학문분야의 존재 가치를 강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타학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연구는(research)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연구란 증거가 없는 상식을 체계적·구체적·논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인하여 이론을 정립해주는 작업이다.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며,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를 이론이라고 한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행위이므로 교육연구의 대상은 무한하며, 그 연구범위와 영역이 매우 넓다. 음악교육 연구는 음악교육현상을 파악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하여 음악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서술하고 묘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숨겨진 사실들을 가지고 교육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음악교육 연구를 통하여 정립된 이론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예언할 수도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이론을 근거하여 바람직한 교육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할 수도 있다. 음악교육에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1) 음악교육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2) 실험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며, (3) 다른 연구자들이나, 교사들, 교육과정 개발자들, 음악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교육의 지식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이다(Mark, 1996).

1990년 이후 우리나라도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음악교육연구를 활발히 해 가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여러 나라에는 음악교육연구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음악교육의 실천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 세미

나((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Technology Seminar), 국제 학술지(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Updat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Music Perception,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음악교육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적용과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초창기의 음악교육 연구의 주제는 음악교육 철학, 음악교육심리학, 음악학습이론, 음악과 교육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형태, 연구방법 등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인지심리학, 음악적 지능, 창의성, IT교육, 문제해결력과 사고, 평생교육, 음악사회학, 평가, 교사교육, 특수교육 등의 연구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는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방법 등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체계와 학문적 전문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최은식, 2000). 최근 들어 세미나와 학술지를 통하여 음악교육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교육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육대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논문발표를 통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술지 논문, 세미나 발표논문, 석사논문들이 다양한 음악교육주제와 폭넓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음악교육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많은 연구에 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음악교육학자들이 어떠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최근의 연구논문 주제가 어떠한 경향을 띠고 있는 지등을 분석·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의 음악교육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의 음악교육연구의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1990년 이후의 외국의 음악교육연구를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둘째, 최근의 음

악교육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고, 셋째,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음악교육연구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의 음악교육 연구에 관한 동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타 영역의 경우-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철학, 교육이론, 수학, 사회-등에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통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적인 학술지의 논문 분류 및 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내용분석(Radocy, 1998; Schmidt & Geringer, 1993; Yarbrough, 1984. 1996), 저자 특성(Geringer, 2000), 편집위원(Humpherys & Stauffer, 2000) 구성, 인용한 문헌(Brittin & Standley, 1997; Sample, 1992), 연구대상(Kratus, 1992, Ebie, 2002), 인용된 학술지(Hamann & Lucas, 1998; Leblanc & McCray, 1991)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크라투스(Kratus, 1992)는 1961년부터 1990년까지의 JRME, CRME, CME(Contribution to Music Education)의 연구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나이별로, 10년차를 두고 분류하였는데,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으로 많았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는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슈미트와 즈진스키(Schmidt & Zdzinski, 1993)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학술지에 수록된 양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내용, 연구유형, 연구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하만과 루카스(Hamann & Lucas, 1998)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6개의 학술지를 중심으로 각주와 참고문헌에 인용된 학술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JRME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학술지이었으며, 두 번째가 CRME이었다. 미국의 많은 음악교육자들은 이 저널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

며, 미국의 음악교육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연구결과에 의하여 JRME는 음악교육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탁월한 연구학술지라고 하였다. 특히, JRME의 연구논문이 초기에는 석박사논문에 기초한 연구가 많았으나, 1953년-83년에는 42%, 1984년-1995년에는 67%, 1996-2002에는 72%의 순수연구물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방법도 매우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사적 연구, 철학적 연구는 점차적으로 줄었으나, 실험적 연구는 1984년-95년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하였으며(50%), 서술적연구는 1984년-95년에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28%), 1996-2002년에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50%), 질적연구는 1984년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8%)라고 하였다.

그라셀(Grashel, 1998)은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음악교육연구에서 여성연구자의 역할과 비중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그라셀과 르블랑(Grashel & LeBlanc, 1998)은 세계적인 음악교육학술지인 'CRME'에 수록된 30년 동안의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험프리(Humphreys, 1999)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HRME(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의 저자, 논문심사위원, 편집위원의 구성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자들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프라이스와 창(Price & Chang, 2000)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음악학술전문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간연도, 논문지의 특징, 발행부수, 발행횟수, 쪽수, 논문의 수, 논문 길이, 논문의 위촉여부, 심사 후 채택여부 등을 조사하여 연구문제의 양적제시와 다양성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였다.

최은식(2000)은 음악교육에 관한 유일한 학술지인 '음악교육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 문헌중심의 연구로(77%) 이루어져 있고, 2)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69%)가 많고, 3)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57%) 주를 이루었다. 그는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문제점으로 첫째, 문헌위주의 연구방법에 지나친 의존, 2) 연구대상의 편중, 3) 미숙한 연구기법, 4) 연구영역의 편중, 5) 국악교육 관련연구의 부재를 들었다.

김미숙(2001)은 JRME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 경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연구의 방향과 논제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영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에 필요한 문헌자료를 제시하였다.

김수정(2000), 박양지(2001)는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 석사논문에 대한 경향분석을 하였으며, 공남일(2003)은 교육대학원 논문 중 중·고등학교의 음악 감상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음악교육에 관한 석사논문의 영역 및 내용 편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논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어느 학문분야이든지 학술지가 해당분야의 연구동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악교육 관련 국외 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음악교육연구의 최근 동향을 도출하였다. 음악교육연구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음악교육 학술지로서 음악교육분야에서의 학술연구 결과를 보급하기 위하여 발행되고 있는 미국의 음악교육 학술지인 JRME(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CRME(Bulletin of the Counci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Update: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과 국제 학술지인 IJME(Interac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를 선정하였다. JRME와 Update는 미국음악교육자 협의회(MEN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음악교육연구와 관련된 학술지이며, CRME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결과를 보급하고 있다. IJME는 세계음악자 협의회(ISME, International Society of Music Education)에서 발행하는 학술

지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학문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음악교육연구를 다룬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학술지들은 논문 게재율은 30% 정도가 되는 매우 우수한 음악교육 전문 학술지이다.

본 학술지들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음악교육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음악교육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연구, 실제로 적용한 연구 등 음악교육과 관련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와의 교류에도 힘쓰며 모든 종류의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 연구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음악교육 관련 저서, 관련 학술지, 국제 세미나,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음악교육논문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의 3가지 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분석요목을 범주화하여 논문들을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연구분석은 1990년 이후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전체를 비교하고, 다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유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교사, 음악전문가, 음악교육학자, 특수아, 성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초등, 중등학생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며, 대학생은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과 음악을 비전공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을 포함하였다. 교사는 음악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예비음악교사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나누었다. 음악전문가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연주가, 음악교육학자는 음악교육학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음악을 배우는 사람, 특수아는 학습장애와 영재아를 포함하였다. 그 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 사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음악교육에서 활용하는 음악교재 및 교구, 음악교육학과 관련된 이론을 연구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는 위의 분류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으로 하였다. 기타는 연주를 처음 배우는 사람, 전문적이지 않은 음

악가, 음악이론 등을 포함하였다.

음악교육 연구의 영역과 주제가 변화함에 따라 연구방법이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학문적 과제가 던지고 있는 질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연구방법은 역사적 연구, 철학적 연구, 실험적연구, 서술적 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역사적 연구는 음악교육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검증하고 분석하고, 철학적 연구는 음악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미학적 관점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포함하였다. 실험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처치를 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서술적 연구는 음악교육적 현상을 파악하여 현재의 사실을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질적연구는 특수한 음악적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교육체제, 과정, 현상을 총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연구를 포함하며, 문헌연구는 음악교육학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연구영역은 음악교육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음악교육역사,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심리학,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공학,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사교육, 음악과 특수교육, 음악교육연구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는데 음악교육역사는 음악교육사와 음악교육자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음악교육철학은 음악교육 철학, 음악교육 미학, 음악의 미적반응과 미적경험을 포함한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음악교육심리학은 음악심리학을 음악교육학에 활용한 연구는 모두 포함하였다. 음악학습에서의 지각, 인지과정, 음악성, 창의성, 음악적, 사고력, 음악에 대한 반응, 정의적 태도의 특성 등이 포함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과정, 영역별에 따른 교육과정, 음악과 학습위계 등을 포함하였으며,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은 전통적인 음악교수법과 최근의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교수-학습방법, 음악지도 계획 및 수업설계에 관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음악교육공학은 컴퓨터와 관련된 음악학습, 음악수업 등에 관한 논문이 포함되었으며, 음악과 평가는 평가도구 개발 및 측정, 영역별 평가방법, 수행평가 등의 논문이 포함되었으며, 음악교사교육은 예비교사 교육, 현직 교사교육과 관련

된 연구, 교수행위, 교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음악과 특수교육은 특수아와 관련된 논문, 음악교육 연구는 음악교육연구과 관련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IV. 연구분석 결과

연구분석은 위의 분류방법에 따라 하였으며, 각 범주에 속하는 논문의 사례는 각 학술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한다. 각 학술지별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4개의 학술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논문수와 백분율로 나누어 제시하며, 논문수가 분기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백분율에 의한 결과를 분석한다. 각 학술지가 매년 발간하는 논문수가 다르기 때문에 논문편수로 비교하지 않고 백분율로 비교하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지적한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1. Update에 나타난 연구동향

1) 연구대상별 분석

1994년부터 2004년까지 Update에 발표된 논문은 총 63편으로 연구대상별로 분석하면 음악교육학이론(23.8%), 교육프로그램(19.0%), 초등학생을(15.9%)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순위별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연구기간별로 분석하여 보면, 1994년-1998년 사이에는 교육프로그램(17.6%), 음악교육학이론(23.5%), 초등학생(17.6%)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였고, 1998년-2004년 사이에는 교육학이론(31.0%), 교육프로그램(13.7%), 초등학생, 중등학생, 교사의(13.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은 후반기에는 많이 줄었으며, 새로운 교육이론에 대한 소개와 교사교육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학술지와 달리 유아와 대학생を対象으로 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예비음악교사, 음악교육학자, 교재 및 교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혀 없었다.

(표 1) Update 연구대상별 분포

	1994-2004		1994-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유아	1	1.6	1	2.9	0	0.0
초등학생	10	15.9	6	17.6	4	13.7
중등학생	9	14.3	5	14.7	4	13.7
대학생	1	1.6	1	2.9	0	0.0
예비음악교사	0	0.0	0	0.0	0	0.0
교사	7	11.1	3	8.8	4	13.7
음악전문가	4	6.3	3	8.8	1	3.4
음악교육학자	0	0.0	0	0.0	0	0.0
특수아	3	4.8	0	0.0	3	10.3
성인	1	1.6	1	2.9	0	0.0
교육프로그램	12	19.0	8	23.5	4	13.7
교재 및 교구	0	0.0	0	0.0	0	0.0
음악교육학이론	15	23.8	6	17.6	9	31.0
계	63	100	34	100	29	100

(*수: 논문수, %: 백분율)

초등학생은 일반음악, 합창의 순으로, 중등학생은 합창, 일반음악, 기악, 밴드의 순으로 연구 대상을 하였다. 전문가는 지휘자와 연주자와 연주연습방법을, 교사는 중등, 초등, 대학, 특수아를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 음악교육학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영역별에 따른 교수-학습방법, 학교급별 교육과정(초등, 중등, 대학, 특수아), 음악적 개념의 지각, 음악적 개념의 습득과정, 인지과정 등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별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문헌연구가(47.6%)가 가장 많았으며, 실험적 연구(25.4%), 서술적연구(19.0%)의 순이었다(표 2참조).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하면 실험적연구가 후반기에 34.5%로 전반기 17.6%에 비하여 많이 늘었으나, 서술적연구는 10.3%로 많이 줄어들었다. 실험적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의 방법으로 두 집단간의 비교연구가 많았다.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도 나타나듯이 질적연구에(6.9%)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2) update 연구방법별 분포

	1994-2004		1994-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역사적연구	2	3.2	1	2.9	1	3.4
철학적연구	0	0.0	0	0.0	0	0.0
실험적연구	16	25.4	6	17.6	10	34.5
서술적연구	12	19.0	9	26.5	3	10.3
질적연구	3	4.8	1	2.7	2	6.9
문헌연구	30	47.6	17	50.0	13	44.8
계	63	100	34	100	29	99.9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헌연구는 교육심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사교육 등에 대하여 이론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교육심리의 경우, 음악적 인지과정, 창의성, 개념습득, 음악적 경험, 음악적 선호도 등 다양한 관심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은 학교급별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 다문화교육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교수-학습방법은 합창, 기악, 일반음악의 지도방법과 음악 활동 영역별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실험연구는 음악적 요소의 이해에 대한 효과를 보는 연구가 많았는데, 음고 정확도, 리듬학습, 음악적 선호도, 초견 학습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있었다.

서술적 연구는 조사연구가 많았는데, 합창에서의 학생들의 인식조사,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조사,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학생들의 음악적 선호도에 대한 연구와 현행 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조사도 있었다. 서술적 연구는 질문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인터뷰와 관찰을 동시에 연구도구로 활용하는 연구도(3편) 있었다. 질적연구는 많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수업에서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3) 연구영역별 분석

연구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음악교육 심리와(30.2%)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높았다. 분기별에 따른 분석에도 이 연구가 많은 관심의 분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우리나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높음에(25.4%), 이는 교과교육학적 적용이 관심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기가 후반기에 비하여 더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1994년 미국의 GOALS 2000(미국의 국가표준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수-학습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사교육에(11.0%)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후반기에(1999년 이후) 매우 높은 관심을(17.2%)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교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음악교육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update 연구영역별 분포

	1994-2004		1994-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음악교육역사	2	3.2	1	2.9	1	3.4
음악교육철학	0	0.0	0	0.0	0	0.0
음악교육심리	19	30.2	10	29.4	9	31.0
음악교육과정	8	12.7	5	14.7	3	10.3
음악교수-학습방법	16	25.4	10	29.4	6	20.7
음악교육공학	2	3.2	2	5.9	0	0.0
음악교육평가	5	7.9	3	8.8	2	6.9
음악교사교육	7	11.0	2	5.9	5	17.2
음악과 특수교육	4	6.3	1	2.9	3	10.3
계	63	100	34	100	29	100

음악교육심리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았는데, 인지과정, 음고인식, 인지평가, 선호도, 창의성, 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음악교수-학습방법은 합창 및 기악지도방법, 교수전략, 음악영역별 연습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악곡선택과 그 기준, 지역별 교육과정 실태, 초등학교에서의 음악활동 및 경험 선정, 다문화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후반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교사교육은 리허설에서의 교사의 시간활용, 교사의 자질, 미래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 교육평가는 연주 평가,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2. JRME에 나타난 연구동향

1) 연구대상별 분석

JRME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한 논문은 총 269편이다.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23.4%), 중등학생(15.2%), 대학생(14.5%)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순위별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11.9%), 음악전문가(7.8%)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았는데, 다른 연구학술지에 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대상도 골고루 하였다. 이는 JRME가 순수연구물을 중심으로 한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지인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Update와는 다르게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음악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예비교사들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표 4참조).

연구기간별로 분석하여 보면, 1993년-1998년에는 초등학생(26.8%), 중등학생(16.6%), 대학생(12.7%)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1999년-2004년에는 초등학생(18.8%)을 대상으로 매우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대학생(17.0%), 교사(14.3%)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후반기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음악교육의 교육개혁방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JRME 연구영역별 분포

	1993-2004		1993-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유아	10	3.7	5	3.2	5	4.5
초등학생	63	23.4	42	26.8	21	18.8
중등학생	41	15.2	26	16.6	15	13.4
대학생	39	14.5	20	12.7	19	17.0
예비교사	10	3.7	5	3.2	5	4.5
교사	32	11.9	16	10.2	16	14.3
음악전문가	21	7.8	12	7.6	9	8.0
음악교육학자	10	3.7	7	4.5	3	2.7
성인	6	2.2	3	1.9	3	2.7
특수아	1	0.4	0	0.0	1	0.9
교육프로그램	11	4.1	5	3.2	6	5.4
교재 및 교구	8	3.0	5	3.2	3	2.7
음악교육학이론	16	5.9	10	6.4	6	5.4
기타	1	0.4	1	0.6	0	0.0
계	269	100	157	100	112	100

연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시청각기술, 음악적 개념과의 관련, 청각적 지각, 음악에 대한 태도, 창작 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초등대상의 경우에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에 관련된 연구의 순으로 많으며,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가창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중등의 경우에는 기악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합창, 창작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에는 경력교사, 초임교사, 예비교사를 다양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교수(teaching) 효율성, 교사의 자질, 예비교사로서의 철학적 신념, 직업선택 동기, 음악교육자로서의 음악교수성공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많았는데,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의 두 집단에 대한 음악에 대한 청각적 인식, 인지적 구별, 정서적 비교를 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많았다.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실태, 음악수업

에서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유아의 음악적 요소(음정, 리듬, 화음 등) 습득과정과 가창과(노래인식, 가창과 음악적성)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음악전문가는 지휘자와 연주자를 대상으로 연주의 질, 연주능력, 연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음악교육학자는 음악교육분야에서의 명성이 높은 음악교육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교육학이론은 JRME의 연구물 분석, 박사논문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2) 연구방법별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서술적연구가(42.8%)가 가장 많았으며, 실험적 연구(38.6%), 질적연구(8.6%)의 순으로 연구를 하였다. JRME는 순수 연구물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이므로 실제로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가 81.4%나 나타났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하면 서술적연구가(47.1%), 후반기에는 실험적 연구가(37.5%)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질적연구는 전반기(3.2%)에 비하여 후반기(14.3%)로 매우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적 연구(4.8%), 철학적연구(0.3%), 문헌연구는(4.8%)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5참조).

(표 5) JRME 연구방법별 분포

	1993-2004		1993-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역사적연구	13	4.8	9	5.7	4	3.6
철학적연구	1	0.3	0	0.0	1	0.8
실험적연구	104	38.7	62	39.5	42	37.5
서술적연구	115	42.8	74	47.1	41	36.6
질적연구	23	8.6	7	4.5	16	14.3
문헌연구	13	4.8	5	3.2	8	7.1
계	269	100	157	100	112	100

실험적 연구는 음악적 요소에 대하여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았다.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두 집단이상의 비교 및 효율성 검증, 두개 이상의 변인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서술적 연구는 조사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영역별에 따른 수업설계, 학생의 음악에 대한 선호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연주에 대한 평가,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었다. 질문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음악검사를(선호도 검사) 활용하여 조사를 한 연구도 있었으며, 질문지, 인터뷰, 관찰 등 2수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연구도 있었다.

질적연구도 후반기에 늘어났다. 다른 학술지와 달리 문헌연구가 매우 적은데 이는 JRME가 연구검증에 대한 순수연구물을 강조하는 학술지이기 때문이다.

3) 연구영역별 분석

연구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음악교육 심리(31.6%) 교수학습방법(25.7%)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교사교육과(13.4%) 관련된 연구도 10%이상 되었다. 분기별 분석에도 이 영역의 연구가 많은 관심의 분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참조). 전반기에는 음악교육심리(35.0%), 교수-학습방법(24.2%), 교사교육으로(10.8%)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교수학습방법(27.7%), 음악교육심리(26.8%), 교사교육(17.0)대한 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 철학, 음악과 특수교육, 음악교육공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6) JRME 연구영역별분포

	1993-2004		1993-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음악교육역사	14	5.2	9	5.7	5	4.5
음악교육철학	1	0.3	0	0.0	1	0.8
음악교육심리	85	31.6	55	35.0	30	26.8
음악교육과정	19	7.1	9	5.7	10	8.9
음악교수-학습방법	69	25.7	38	24.2	31	27.7
음악교육공학	6	2.2	4	2.5	2	1.8
음악교육평가	25	9.3	16	10.2	9	8.0
음악교사교육	36	13.4	17	10.8	19	17.0
음악과 특수교육	3	1.1	2	1.3	1	0.8
음악교육연구	11	4.1	7	4.5	4	3.6
계	269	100	157	100	112	100

영역별 연구는 음악교육심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음악적 선호, 음악적요소(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등)와 음악적 패턴인지, 학생의 성별과 급별에 따른 음악활동, 음악연주에 대한 인지, 연주훈련에 따른 효과, 교사의 다양한 수업전략에 따른 학생의 반응과 효과, 음악검사(선호도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의 타당성 검증, 음악적 변인 고찰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수업지도를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검증한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는 학교급별에 따른 음악영역별 지도 방법(가창, 기악, 창작, 감상, 합창, 기악)이 많았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경우 전반적인 지도방법 혹은 지도 안개발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다. 학생들의 음고 정확성, 연주의 이해력과 연주능력의 향상, 리허설에서의 교수전략, 지휘자의 언어와 체스처 활용의 효과, 독보기술의 발전, 교수방식의 효과, 능력차에 따른 단계적 음악적 패턴 지도, 음악적 요소와 학생의 음악적 능력의 향상효과, 인지적 과정, 학생의 음악적 지각과 능력과의 관계, 수업전략별에 따른 효과, 학생들의 작곡과정 등 연구주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분야가 많았다.

교사교육은 교사교육의 실태, 음악교사교육과 대학간의 협력실태, 성공적 교수기술, 예비교사의 철학적 신념, 경력교사의 효율적인 교수방법, 국가기준의 교육과정과 교사로서의 적용의 문제점, 교사로서의 삶과 역할,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음악교육평가는 전문적 연주에 대한 실기평가의 신뢰성, 학교에서의 평가 기준, 연주의 선호도 평가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연속적 평가와 일회적 평가의 비교,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일관성, 평가의 정확성, 창의력 평가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음악교육역사는 유명한 음악교육 학자에 대한 역사적 고찰,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3. CRME에 나타난 연구동향

1) 연구대상별 분석

CRME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한 논문은 총 337편이었다. 연구대상별로 보면 음악교육학이론(23.4%), 초등학생(19.2%), 교사(11.6%)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순위별로 나타났다. 유아(9.5%), 중등학생(8.9%), 교재 및 교수로(7.1%) 나타나고, 교육 프로그램(5.9%), 대학생(4.7%)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구대상이 한 수준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연구기간별로 분석하여 보면, 1993년-1997년에는 교육학 이론(37.3%), 초등학생(11.1%), 중등학생(8.9%) 순위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음악교육이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소개하였다. 1998년-2003년에는 초등학생(25.7%), 교사(13.4%), 유아(11.7%)순으로 나타났다. 후반기에는 음악교육학이론에 대한 연구가 대폭 줄었으며, 초등학생, 교사, 유아, 중등학생 등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음악교육학이론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CRME는 이론을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교육이론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하여 이론을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학교에서의 교육개혁, 교사교육의 개혁과 변화, 미래를 위한 음악교육비전, 음악교육에서의 다문화적 조망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음악적 패턴과 음악적 지각, 음악학습의 모델링, 연주평가를 위한 컴퓨터의 활용 등이 있었다. 음악교육학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다중지능이론, 엘리엇의(D. Elliott) 음악교육철학 이론,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특히,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는 두 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994, 1998년에 질적연구 특집 학술지를 발간하였는데,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문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CRME의 경우, 여러 수준의 대상을 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에도 유아와 초등(11편), 유아와 대학생, 유아와 어머니, 유아와 전문가(각 1편)로 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초등과 중등(12편), 초, 중, 대학생(1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CRME 연구대상별 분포

		1993-2003		1993-1997		1998-2003	
		수	%	수	%	수	%
유아	유아	18	5.3	3	1.9	15	8.4
	유, 초, 대	14	4.2	8	5.1	6	3.3
초등	초등	52	15.4	16	10.1	36	20.1
	초중, 초중대	11	3.7	1	0.6	10	5.6
중등학생		30	8.9	14	8.9	16	8.9
대학생		16	4.7	7	4.4	9	5.0
예비교사		19	5.6	3	1.9	16	8.9
교사		17	5.0	9	5.7	8	4.5
음악전문가		14	4.2	7	4.4	7	4.0
음악교육학자		7	2.1	3	1.9	4	2.2
성인		0	0.0	0	0.0	0	0.0
특수아		1	0.0	0	0.0	1	0.6
교육프로그램		20	5.9	10	6.3	10	5.6
교재 및 교구		24	7.1	12	7.6	12	6.7
음악교육학이론		79	23.4	59	37.3	20	11.2
기타		15	4.5	6	3.8	9	5.0
합계		337	100	158	100	179	100

CRME는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다른 학술지와 달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음악적 기초 요소(리듬, 가락, 박)에 대한 인지과정, 언어와 음악적 특징, 유아의 가창능력, 놀이와 유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두그룹-유아와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화음변화, 가락 예견 능력, 음악듣기 반응, 정확하게 노래 부르기, 작곡과정에서의 사고방법에 대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다.

초등은 영역별(가창, 기악, 창작)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의 연구가 있었으며, 음악적 요소에 대한 지각과 이해, 음악에 대한 선호, 음악적 성취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중등의 경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비슷하게 일반음악, 기악연주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다른 학술지와 달리 밴드(3편)와 합창(3편)에 관한 연구가 적은 편이었다. 일반음악은 학생들의 음악적 표현 전략, 음

악과목의 선택, 기악연주는 연주기술 및 표현방법, 악기연주를 위한 준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대학생은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연주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는데, 연주의 질, 기억, 음악연주의 불안감, 음악패턴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음악감상 패턴, 선호도, 박의 인지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었다.

교사의 경우에는 다른 학술지와 달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경력교사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예비교사의 경우, 직전교육에서의 협력교사 모델링,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교생의 교수(teaching)에 대한 신념과 실제, 예비교사경험의 효율성 등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가 많았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사교육프로그램과 학교와 파트너십, 합창 및 기악 프로그램 개발, 학교급별과 영역별 교육과정 수발, 교과간 통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나라별(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프로그램 소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다른 학술지와 달리 교육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교재 및 교구의 경우, 여러 장르의 음악의 활용, 여러 나라 음악에 대한 문화적 독특성, 교재와 관련된 분석 등이 있다. 기타는 처음 음악을 배우는 사람이 음악을 배우며 생기는 경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2) 연구방법별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문헌연구(27/9%), 서술적연구가(25.5%), 실험적연구(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질적연구가(16.9%) 높게 나타났는데(표 8참조), 이는 CRME가 1990년 이후 질적연구방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두 번의 특집호가(1994. 1998) 발간됨으로써 많은 음악교육학자들이 이에 관심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하면 전반기에는 문헌연구(43.0%), 실험적연구(22.1%), 서술적연구(15.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서술적연구(34.1%), 질적연구(22.9%), 실험적 연구(18.4%)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문헌연구(14.5%)로 매우 줄었으며, 질

적연구는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매우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역사적 연구(5.3%), 철학적연구는(4.2%)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8) CRME 연구방법별 분포

	1994-2004		1994-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역사적연구	18	5.3	11	7.0	7	3.9
철학적연구	14	4.2	3	1.9	11	6.1
실험적연구	68	20.2	35	22.1	33	18.4
서술적연구	86	25.5	25	15.8	61	34.1
질적연구	57	16.9	16	10.1	41	22.9
문헌연구	94	27.9	68	43.0	26	14.5
계	337	100	158	100	179	100

문헌연구는 연구대상 분석에서 보듯이 음악교육학이론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문헌연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음악교육과의 관련성, 학교급별에 따른 음악교육 개혁, 교사교육의 개혁과 변화, 다문화 음악교육, 영역별, 학교급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분석, 음악적 이해의 구성, 음악학습과 지각, 음악적 경험과 학습, 음악적 사고과정, 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역할,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전망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음악교육에서의 변화를 위한 개혁에 대한 연구가 많고, 음악교육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을 밝히는 연구가 많았다.

서술적 연구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다. 교사의 인식과 태도, 음악활동(가창, 기악, 작곡, 감상, 합창, 합주)에서의 학습과정과 방법, 음악적 요소의 인지,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음악적 선호도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소수민족을 위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의 음악교육에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 서술적 연구는 질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외에 인터뷰, 관찰, 음악검사 등을 활용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도구를 사용한 연구도 많았다.

실험연구는 음악적 요소의 인지과정, 기억전략, 교수훈련, 연주표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검증,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검증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철학적 연구는 엘리엇의 교육철학, 음악적 지식의 의미, 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연구가 많았다. 역사적 연구는 유명한 음악교육학자인 레온하드(C. Leonhard)에 관련된 연구가 있었으며, 밴드의 역사, 여성음악교육자, 아동 음악교육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질적연구는 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유아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학습상황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많이 활용하였으며(7편), 가창능력발달과정, 음악적요소의 습득과정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교사는 예비교사와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15편), 예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지각, 음악에서의 지식형성 과정, 직전교육에서의 음악교육자로서의 모습, 예비교사로서의 수업을 통한 반성적 사고, 좋은 교수의 정의 등에 대한 연구를 관찰과 면담, 수업녹화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3) 연구영역별 분석

연구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음악교육 심리와(39.2%) 교수학습방법(18.7%), 음악교사교육(1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면, 음악교육철학(8.6%)에 관한 영역도 8.6%로 나타났다(표 9참조). 전반기에는 음악교육심리(32.3%), 교수-학습방법(15.8%), 교사교육으로(13.9%)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음악교육심리(45.3%), 교수학습방법이(21.2%) 65%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가 12.3%로 나타났으며, 음악교육철학도 8.9%로 나타났다.

(표 9) CRME 연구영역별 분포

	1994-2004		1994-1998		1999-2004	
	수	%	수	%	수	%
음악교육역사	13	3.9	7	4.4	6	3.4
음악교육철학	29	8.6	12	7.6	16	8.9
음악교육심리	132	39.2	51	32.3	81	45.3
음악교육과정	18	5.3	13	8.2	5	2.8

(표 9) 계속

음악교수-학습방법	63	18.7	25	15.8	38	21.2
음악교육공학	5	1.5	3	1.9	2	1.1
음악교육평가	14	4.2	9	5.7	5	2.8
음악교사교육	44	13.1	22	13.9	22	12.3
음악과 특수교육	1	0.0	0	0.0	1	0.0
음악교육연구	18	5.3	16	10.1	2	1.1
계	337	100	158	100	179	100

CRME는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다양한 연구주제는 비교적 고르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Update, JRME와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심리가(39.2%) 가장 현저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의 음악적 요소 습득과정, 음악적 기능의 습득과정, 음악적 패턴의 지각, 음악적 인지, 음악적 사고와 음악적 이해, 연주와 인지전략과 기능습득, 즉흥 연주와 작곡과정, 음악적 선호도, 음악과 언어, 여러 음악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구체적인 수업지도를 통한 학습지도 분석한 교수-학습방법은 영역별(가창, 기악, 창작, 감상, 합창, 기악) 수업설계와 교수방법, 교수방식과 학생의 음악적 성취와의 관계, 여러 나라의 음악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일반음악은 학생들의 음악적 표현 전략, 음악과목의 선택, 기악연주는 연주기술 및 표현의 방법, 악기연주를 위한 준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즉흥연주와 작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Goals 2000)에서 강조한 즉흥연주와 작곡활동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교사교육은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국가기준과 교사교육의 관련, 전문가로서의 음악교사 교육, 교사교육의 개혁과 변화, 예비교사를 위한 좋은 교사로서의 모델, 직전교육에서의 협력교사 모델링,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교생의 교수(teaching)에 대한 신념과 실제, 예비교사경험의 효율성, 학교와의 파트너십, 교사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교육철학은 문화적 독특성, 음악교육의 사회적 역할, 문화와 음악교육, 엘리엇의 음악교육 철학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교육과정은 교사교육프로그램, 합창 및 기악프로그램 개발, 학교급별과 영역별 교육과정 개발, 교과간 통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나라별(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프로그램 소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다른 학술지와 달리 교육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4. IJME에 나타난 연구동향

1) 연구대상별 분석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음악교육학이론(41.3%), 교육프로그램(13.2%)에 관한 연구가 60%이상 나타났다(표 10참조). IJME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교육학자들의 연구물을 발간하는 학술지라는 특성 때문에 각 나라의 음악교육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향이 있어 각 나라의 음악교육학의 이론과 특징, 각 나라의 특징적인 음악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반면에 위의 학술지와 달리 유아(4.1%), 초등(4.1%), 중등학생을(2.5%)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미약하였다. 위의 학술지에 비하여 음악전문가(6.6%)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높은 편이었는데, 각 나라의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 연주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기간별로 분석하여 보면, 1992년-1996년 사이에는 음악교육학이론(44.4%), 교육프로그램(16.7%), 음악교육학자(1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2002년 사이에는 음악교육학이론(40.0%), 음악교육프로그램(11.8%), 음악전문가(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에는 각 나라의 음악교육학이론과 더불어 음악교육에 기여한 학자들에(13.9%) 대한 소개가 많았으며, 후반기에는 각 나라의 음악가들에(9.4%) 대한 소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IJME 연구대상별 분포

	1992-2002		1992-1996		1997-2002	
	수	%	수	%	수	%
유아	5	4.1	1	2.8	4	4.7
초등학생	5	4.1	1	2.8	4	4.7
중등학생	3	2.5	0	0.0	3	3.5
대학생	0	0.0	0	0.0	0	0.0
예비교사	3	2.5	0	0.0	3	3.5
교사	5	4.1	3	8.3	2	2.4
음악전문가	8	6.6	0	0.0	8	9.4
음악교육학자	5	4.1	5	13.9	0	0.0
성인	0	0.0	0	0.0	0	0.0
특수아	2	1.7	0	0.0	2	2.4
교육프로그램	16	13.2	6	16.7	10	11.8
교재 및 교구	10	8.3	2	5.6	8	9.4
음악교육학이론	50	41.3	16	44.4	34	40.0
기타	9	7.4	2	5.6	7	8.2
계	121	100	36	100	85	100

음악교육학 이론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 각 나라의 음악교육, 세계음악과 음악교육, 음악교육의 정체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음악교육, 음악교육의 철학적 관점 등에 대한 음악교육의 원론적인 내용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교육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교육과정, 각 나라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여러 음악의 적용, 다문화적 음악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로 각 나라의 음악교육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교재 및 교구는 각 나라의 음악의 수업에서의 활용, 공학의 활용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전문가는 각 나라의 음악연주자들을, 음악교육학자는 세계적인 음악교육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별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연구대상에서 음악교육학이론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을 보여주듯이 문헌연구(56.2%)가 50%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에 서술적연구(11/6%), 철학적연구(12.4%)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표 11 참조). 위에서 제시한 학술지에 비하여 실험연구는 0.8%로 이론을 실제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하면 전반기에는 문헌연구(52.8%), 역사적연구(27.8%), 철학적연구(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반기에는 서술적연구(34.1%), 질적연구(22.9%), 실험적연구(18.4%)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문헌연구(57.6%)가 전반기에 비하여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철학적연구, 서술적연구, 질적연구가 12.9%를 차지하였으며, 질적연구는 전반기에는 한편도 없었으나, 후반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음악교육연구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11) JME 연구방법별 분포

	1992-2002		1992-1996		1997-2002	
	수	%	수	%	수	%
역사적연구	12	9.9	10	27.8	2	2.4
철학적연구	15	12.4	4	11.1	11	12.9
실험적연구	1	0.8	0	0.0	1	1.2
서술적연구	14	11.6	3	8.3	11	12.9
질적연구	11	9.0	0	0.0	11	12.9
문헌연구	68	56.2	19	52.8	49	57.6
계	121	100	36	100	85	100

문헌연구는 각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 각 나라의 음악과 교수-학습방법, 각 나라의 음악을 활용한 수업방법, 교수-학습모델, 음악교육철학, 다문화음악교육, 간문화적 음악교육, 문화적 전통의 생존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서술적 연구는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 교사교육의 변화, 대학에서의 현장경험의 중요성, 음악프로그램의 중요성, ICT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철학적 연구는 세계 속에서의 음악교육,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재조명, 음악교육에서의 다문화적 사고 등에 대한 세계 속에서의 음악교육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질적연구는 종족음악적 연구와 관련지어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각 나라의 음악적 특징을 기술한 연구가 있었다.

3) 연구영역별 분석

연구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음악교육철학(24.8%) 교수학습방법(19.0%), 음악교육과정(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기에는 음악교육역사(27.8%), 교수-학습방법(22.2%), 음악교육철학으로(13.9%) 나타났으며, 후반기에는 음악교육철학(29.4%), 음악과 교육과정(18.8%), 교수학습방법(21.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참조). 음악교육철학, 각 나라의 음악교육과정, 각 나라의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타났다.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검증을 하는 연구보다는 문헌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음악교육심리에(12.4%) 대한 관심은 미국에 비하여 다른 나라들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IJME 연구영역별 분포

	1992-2002		1992-1996		1997-2002	
	수	%	수	%	수	%
음악교육역사	13	10.7	10	27.8	3	3.5
음악교육철학	30	24.8	5	13.9	25	29.4
음악교육심리	15	12.4	3	8.3	12	14.1
음악교육과정	20	16.5	4	11.1	16	18.8
음악교수-학습방법	23	19.0	8	22.2	15	17.6
음악교육공학	8	6.6	2	5.5	6	7.1
음악교육평가	1	0.8	0	0.0	1	1.2
음악교사교육	8	6.6	4	11.1	4	4.7
음악과 특수교육	2	1.6	0	0.0	2	2.4
음악교육연구	1	0.8	0	0.0	1	1.2
계	121	100	36	100	85	100

위의 학술지와는 다르게 각 나라의 음악교육의 특성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으며, 세계 속에서의 각 나라의 음악교육의 위치와 역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음악교육철학은 서구음악교육과 각 나라의 음악교육, 새로운 음악교육 철학을 위한 조망, 역사와 문화와 음악교육, 다문화음악교육의 보편성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교수-학습방법은 각 나라의 전통적인 음악에 대한 교수전략과 수업설계, 교육과정은 각 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정, 각 나라의 전통적인 음악의 적용, 각 나라의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음악교육심리는 다문화적음악의 학생의 반응, 인지기술, 작곡과정과 창의성, 각 나라의 언어와 음악학습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음악교육공학은 디지털매체의 활용, ICT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4) 나라별 분석

학술지의 특성상 각 나라별로 분석을 하였는데, 미국(26.4%), 영국(13.2%), 오스트레일리아(11.6%)로 나타났다(표 13참조). 이를 보면 위의 학술지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세계의 음악교육연구분야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음악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3) JME 나라별 분포

	1992-2002		1992-1996		1997-2002	
	수	%	수	%	수	%
미국	32	26.4	9	25.0	23	27.1
영국	16	13.2	6	16.7	10	11.8
오스트레일리아	14	11.6	6	16.7	8	9.4
캐나다	9	7.4	5	13.9	4	4.7
중국(홍콩포함)	5	4.1	1	2.8	4	4.7
스웨덴	4	3.3	1	2.8	3	3.5
남아프리카	4	3.3	0	0.0	4	4.7
스코틀랜드	3	2.4	1	2.8	2	2.4
브라질,아르헨티나,독일	9(3)	7.2(2.4)	0	0.0	9(3)	10.6
가나,나이지리아,한국	6(2)	4.8(1.6)	3(1)	8.3	3(1)	3.5
뉴질랜드	2	3.2	2	5.6	0	0.0
그리스,노르웨이,일본	6(2)	4.8(1.6)	0	0.0	6(2)	7.1
헝가리,타이	2(1)	1.6(0.8)	2(1)	5.6	0	0.0
네덜란드,베네수엘라,멕시코, 스위스,오스트리아,이스라엘, 이탈리아,프랑스,핀란드	9(1)	7.4(0.8)	0	0.0	9(1)	10.6
계	121	100	36	100	85	100

*()는 각 나라별에 따른 %이고 ()밖의 숫자는 총계를 의미함

미국은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시대적 발전에 따른 음악교육의 위상과 실제, 사회에서의 음악교육, 음악에 대한 선호도, 음악교육 평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영국은 음악교육의 본질, 음악교육의 사회적, 역사적 측면, 자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업설계 및 모형, 교육공학의 활용, 대학의 음악교육과정, 음악교사로서의 딜레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5. 학술지별 비교에 대한 연구동향

1) 연구대상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63.8%, 새로운 음악교육이론에 대한 소수, 교육프로그램, 교재 및 교수의 활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36.2%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비교하여 보면, Update가 56.8%, CRME가 59.2%, IJME가 29.7%있었다. JRME는 86.5%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17.8%), 교사(예비교사 포함)(11.8%), 중등학생이(10.5%) 그 다음 순위였다(표 14참조).

(표 14) 학술지 연구대상별 분포

	Update)		JRME		CRME		IJME		전체	
	수	%	수	%	수	%	수	%	수	%
유아	1	1.6	10	3.7	32	9.5	5	4.1	48	6.1
초등학생	10	15.9	63	23.4	63	19.2	5	4.1	141	17.8
중등학생	9	14.3	41	15.2	30	8.9	3	2.5	83	10.5
대학생	1	1.6	39	14.5	16	4.7	0	0.0	56	7.1
예비음악교사	0	0.0	10	3.7	19	5.6	3	2.5	32	4.1
교사	7	11.1	32	11.9	17	5.0	5	4.1	61	7.7
음악전문가	4	6.3	21	7.8	14	4.2	8	6.6	47	6.0
음악교육학자	0	0.0	10	3.7	7	2.1	5	4.1	22	2.8

(표 14) 계속

특수아	3	4.7	6	2.2	0	0.0	0	0.0	9	1.1
성인	1	1.6	1	0.4	1	0.0	2	1.7	5	0.6
교육프로그램	12	19.0	11	4.1	20	5.9	16	13.2	59	7.5
교재 및 교구	0	0.0	8	3.0	24	7.1	10	8.3	42	5.3
음악교육학이론	15	23.8	16	5.9	79	23.4	50	41.3	160	20.3
기타	0	0	1	0.4	15	4.5	9	7.4	25	3.2
합계	63	100	269	100	337	100	121	100	790	100

음악교육연구의 특성상 실제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급별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유아는(9.5%) CRME가, 초등(23.4%), 중등(15.2%), 대학생은(14.5%) JRME가, 예비음악교사는(5.6%) CRME가, 교사는(11.9%) JRME가, 음악전문가(7.8%), 음악교육학자(3.7%), 특수아는(2.2%) JRME가, 교육프로그램은(13.2%) IJME가, 교재 및 교수는(7.1%) CRME가, 음악교육학이론은(23.8%) Update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음악교사에 대한 연구와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의 MENC와 ISME에서 주최한 2002년, 2004년 학술대회 논문 발표에서도 볼 수 있다. 교생과 초임교사를 위한 멘터링(mentoring)과 음악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 교사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학술지별로 비교하여 보면 다양한 연령층과 학교급에 따른 대상을 비교적 골고루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별 분석

연구방법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서술적 연구가 전체의 28.7%, 문헌연구가 25.9%, 실험적연구가 23.9%를 하였다. 질적연구도 11.9%를 차지하였으나, 역사적 연구, 철학적연구는 상대적으로 10%미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학술지 분석연구(최은식, 2000)에 의하면 문헌연구가 77%, 실험연구 8%, 서술적연구 14%, 질적연구 1%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외국 학술지의 경우 연구방법을 고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표 15) 학술지 연구방법별 분포

	Update		JRME		CRME		IJME		전체	
	수	%	수	%	수	%	수	%	수	%
역사적연구	2	3.2	13	4.8	18	5.3	12	9.9	45	5.7
철학적연구	0	0.0	1	0.3	14	4.2	15	12.4	30	3.8
실험적연구	16	25.4	104	38.7	68	20.2	1	0.8	189	23.9
서술적연구	12	19.0	115	42.8	86	25.5	14	11.6	227	28.7
질적연구	3	4.8	23	8.6	57	16.9	11	9.0	94	11.9
문헌연구	30	47.6	13	4.8	94	27.9	68	56.2	205	25.9
계	63	100	269	100	337	100	121	100	790	100

역사적 연구(5.7%), 철학적 연구는(12.4%) IJME가, 실험적연구(38.7%)와 서술적연구(42.8%)는 JRME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적 연구와 서술적 연구가 많은 것은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연구물을 발간하는 학술지들이기 때문이다. 질적연구(16.9%)는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CRME가 가장 많이 하였는데,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주제에 이를 적용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동향이다. 문헌연구는(56.2%) IJME가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JRME는 4.8%로 가장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학적 연구방법과 역사적 연구방법은 미흡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것이라 본다.

3) 연구영역별 분석

연구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음악교육심리(31.8%)와 교수학습방법(2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는 모든 학술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음악교육심리 영역은 Update, JRME, CRME는 30% 이상이었으나, IJME는 12.4%로 낮게 나타났다. 음악교육철학은(24.8%) IJME가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음악교육평가(5.7%), 음악교육공학(2.7%), 음악과 특수교육은(1.3%) 4개의 학술지에서 낮게 나타났다. 최근의 관심분야인 음악교육에서의 평가와 음악교육공학의 활용에 관한

논문이 적은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음악교육공학에 관한 연구가 매우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공학영역에 대한 학술대회(National Music Technology Conference TI:ME)와 학술지가 따로 분리되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학술지 분석연구(최은식, 2000)에 의하면 교수-학습(48%), 교과교육원론(25), 학습심리(9%), 교육과정(5%), 교사교육으로(5%)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편협한 연구영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보면 외국 학술지의 경우 고르게 연구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6참조).

(표 16) 학술지 연구영역별 분포

	Update)		JRME		CRME		IJME		전체	
	수	%	수	%	수	%	수	%	수	%
음악교육역사	2	3.2	14	5.2	13	3.9	13	10.7	42	5.3
음악교육철학	0	0.0	1	0.3	29	8.6	30	24.8	60	7.6
음악교육심리	19	30.2	85	31.6	132	39.2	15	12.4	251	31.8
음악과 교육과정	8	12.7	19	7.1	18	5.3	20	16.5	65	8.2
음악교수-학습방법	16	25.4	69	25.7	63	18.7	23	19.0	171	21.6
음악교육공학	2	3.2	6	2.2	5	1.5	8	6.6	21	2.7
음악교육평가	5	7.9	25	9.3	14	4.2	1	0.8	45	5.7
음악교사교육	7	11.0	36	13.4	44	13.1	8	6.6	95	12.0
음악과 특수교육	4	6.3	3	1.1	1	0.0	2	1.6	10	1.3
음악교육연구	0	0.0	11	4.1	18	5.3	1	0.8	30	3.8
계	63	100	269	100	337	100	121	100	790	100

음악교육역사와(10.7%) 음악교육철학(24.8%), 음악과 교육과정(16.5%)은 IJME에서 많이 하였다. 음악교육심리는(39.2%) CRME가, 음악교수학습방법은 JRME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악교육공학은(6.6%) IJME가, 음악교육평가는(9.7%) JRME가, 음악교사교육은(13.4%) CRME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악과 특수교육(6.3%)는 Update가, 음악교육연구는 CRME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영역별로 보면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음악교육분야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MENC에서 주최한 2004

년 학술대회를 보면 예비교사교육, JAZZ, 즉흥연주, 음악의 다양화, 행정 등을 한 영역으로 정하고 연구발표를 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층과 학교급별에 따른 연구대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특정 연구대상에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주제를 통하여 구체화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연구에도 특정한 대상을 고려한 연구, 다양한 연령층과 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음악교육에 영향을 주는 음악전문가, 대학생,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둘째,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음악교육연구에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학술지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기법, 연구도구의 활용을 소개함으로써 음악교육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특히, 연구주제의 다양화에 따라 제기된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개발·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질적연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도구를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며,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연구방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한 자료의 유형을 결정·수집·분석하는 단계를 거쳐 이에 맞는 연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음악교육학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과학

적인 결과를 산출해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자들은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영역이 다양해지고, 구체적이고 상세화 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의 질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상세화 된 연구 주제 특히, 외국의 음악교육연구는 음악수업현장에서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장에 근거한 이론을 구성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연구와 대비되는 연구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최은식, 2000). 철학적인 논의를 벗어나고, 단순한 이론의 소개가 아닌 현장에 기초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음악교육학 이론이 음악교육학의 가장 오래된 과제인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구체성이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에 요구된다.

넷째, 음악교육연구는 학술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교사, 교육연구가, 음악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연구는 실천의 맥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연구자들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결과를 적용한다. 그러나, 연구자와 교사의 관심이 달라서 많은 연구물들이 현장 실천에 의미있게 기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로서의 교사(teacher as researcher)'라는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는 연구자들이 하고 교사는 연구결과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음악교육연구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가 자기 실천을 연구하는 '당사자 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하여 기존의 실천을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실천을 위하여 단순히 교사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연구자이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 (2001).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 1-19.
- 김수정 (2000). **한국 음악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의 총람 및 분석 (1996-1998)**.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 공남일 (2003). **중,고등학교 감상교육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의 경향분석 연구 (1997-2001년 전반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박양지 (2001). **서울소재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논문주제 분석연구 (1996-2000)**.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서울.
- 최은식 (2000). **21세기 한국음악교과교육 연구의 과제와 전망**. 2차 분기 학술발표자료(2000. 6. 24). 한국음악교육학회.
- Brittin, R. & Standley, J. (1997). Researchers in music education/therapy: Analysis of publications, citations, and retrievability of work.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 145-161.
- Ebie, B. (2002). Characteristics of 50 years of research samples found in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2002.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 280-191.
- Grashel, John(1998). Women in journal in music education-twenty volumes of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80-1999.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 17-26.
- Grashel, J. & LeBlanc, A. (1998).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 The first three decades. *The Bulletin of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8, 1-19.
- Hamann, D. & Lucas, K. (1998). Establishing journal eminence in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

405-413.

- Humphreys, J. (1999). The Bulletin of Historical in Music Education: Its authors, reviewers, and editorial committee members for the first twenty years(1980-1999).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 171-180.
- Humphreys, J. & Stauffer, S. (2000). An analysis of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1992.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 65-77.
- Kratus, J. (1992). Subjects in music education research, 1961-1990. *Quarterly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 50-54.
- LeBlanc, A. & McCrary, G. (1991). Acquiring criteria of excellence for scholarly journals in music.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9. 206-215.
- Mark, M. (1996).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3rd ed.). New York: Schirmer Books.
- Price, H. & Chang, E. (2000).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s, *Update*, 18(2), 19-27.
- Radocy, R. (1998). Personal perspectives on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 342-350.
- Rainbow, E. and Froehlich, H. (1987). *Research in Music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Inquiry*. New York: Schirmer Books.
- Sample, D. (1992). Frequently cited studies as indicators of music education interests, 1963-1989.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 5-18.
- Schmidt, P. & Zozinski, S. (1993). Cited quantitative research articles in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s, 1975-1990 : A content analysis of selected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 5-18.
- Yarbough, C. (198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1983.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 213-222.

Yarbough, C. (1996). The future of scholarly inquiry in music education: 1996 senior researcher award acceptance addres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 190-203.

ABSTRACT

The Alternative Approach of Music Education Inquiry in Korea through Current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Music Education

Seog, Moon Joo

The purpose of this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articles in Update, JRME, CRME, and IJME published from 1992 to 2004, and to make some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research in Korea. The articles in the journal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research samples, research methodology, and subject areas in music education. Major conclusions drawn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amples were very diverse and evenly distributed based on age range and school level.

Second, the research was applied various, scientific, and systematic research methodology.

Third, the subject area in research was very diverse and the topics were very specific.